

TDF로 연금 재테크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 '디폴트옵션' 초읽기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안전 노후"

與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제도 통해 수익률 개선 유도 안전선호 TDF 자금유입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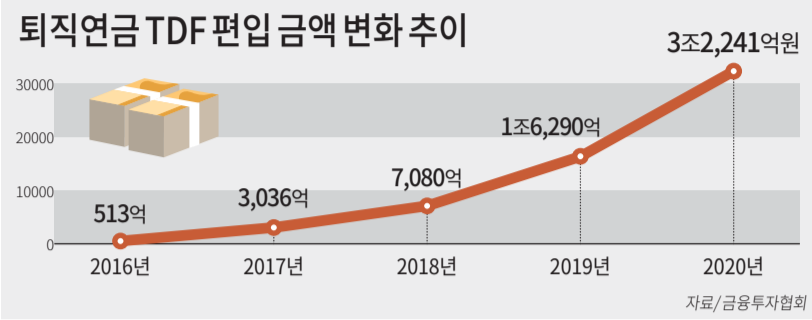
국내 퇴직연금에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이 도입되면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작년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 13.24%

국내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지시를 내리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내리는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 이들 개정안에는 TDF가 디폴트 옵션 사전지정 상품 유형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47%, D B형 수익률은 1.86%로 집계됐다. 이중 DC형 퇴직연금의 83%를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1.69%,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13.24%로 사상 처음 연 10%를 넘어서었다. 초저금리와 증시 활황 때문이라 분석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TDF 상품 출시 활발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경우 TDF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TDF는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기에 맞춰 운용사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다. 연금 수령일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데,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TDF가 채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연금보호법 개정 이후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적격디폴트옵션(QDIA) 요건을

마련해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품들의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 연금시장에서 Q DIA 상품 중 TDF 가입자는 87.3%를 차지한다.

오우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TDF 도입 초기에는 해외 운용사와 제휴한 상품이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형 TDF를 출시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모든 TDF의 1년 평균 수익률은 9.7%를 기록했고,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에 치우친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단기 등락은 있더라도 TDF의 성과가 탁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DC제도에 가입할 때 사전에 가입자가 선호하는 상품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상품 유형이 다양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가입자 본인의 퇴직 시점,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단일이나 복수 유형을 디폴트옵션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TDF 수익률 우수... 연금 특화상품 자리매김

TDF 수탁고 전년 대비 57% ↑ 퇴직연금 유입 규모 2배씩 증가

최근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탁고가 50% 이상 늘어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의 'TDF 시장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DF 수탁고는 5조2314억원 규모다. 전년 말(3조3356억원) 대비 56.8%나 증가했다.

특히 TDF 수탁고 5조2314억원 가운데 퇴직연금으로 유입된 규모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해 61.6%(3조224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TDF란 투자자가 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자산 비중을 조정해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TDF가 저금리, 저성과에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산운용사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TDF 수탁고 추이>

*각 연도말 기준, 순자산(NAV)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사수(개)	3	6	8	10	12
펀드수(개)	15	43	53	68	107
수탁고(억원)	2664	6,780	13,730	33,356	52,314

TDF 도입 초기에는 해외 운용사 제휴형 TDF 위주로 출시됐지만 최근에는 국내 직접 운용형 TDF,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를 활용한 저비용 TDF 등으로 상품의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다.

또 TDF는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여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연금상품'으로서 적합하다.

증시 호황기였던 지난해 TDF의 평균 1년 수익률은 9.7%로, 증시 상승(MSCI 14.3%)에서 국내외 지수를 추종하며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증시 조정기였던 2018년 TDF의 평균 1년 수익률은 7.4%로 증시 하락폭(MSCI -11.2%) 대비 우수한 방어력을 보였다.

이처럼 TDF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호황기에는 수익 창출, 조정

기에는 분산효과로 인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동으로 변동성을 낮게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돼 미국,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채택되고 있다.

오우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일반 투자자가 글로벌 자본 시장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검증된 운용방법이 TDF"라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기·분산투자 수단으로 TDF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운용단계에 있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 투자일임 허용제도 등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 교통 호재로 '들썩' 전세 대안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우미린 더 퍼스트 등 신규단지 분양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가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는 GTX-A노선,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역세권 내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은 운정신도시~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노선이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단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단점이었던 서울 도심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

지난해 8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비용과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GTX 개통 효과를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GTX 3개 노선(A, B, C 노선) 개통 시 경기도 아파트 값은 평균 12%(㎡당 5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정신도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북고양 IC가 위치해 수도권 고속도로망 이용이 가능해진다. '운정신도시~설문간 연결도로'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개정 등으로 발생한 전세난에 따른 중저가 매매 전환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값도 강세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투시도.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운정신도시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자들은 최대 10년간 주거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상품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운정신도시에서 관심을 끄는 단지인 우미건설은 운정신도시 3지구 A-15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846가구를 분양한다. 오는 8월 입주 가능한 후분양 공급 단지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등을 비롯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갖추고 있다.

제일건설(주)은 운정신도시 3지구 A7블록과 A10블록에서 각각 신규 분양 단지를 선보인다. A7블록은 454가구, A10블록은 671가구다. 두 단지 모두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테슬라 매수 1위 탈환... 유니티는 2위로

해외주식 Click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해(2월15~21일 기준)에 가장 많이 산 해외주식은 테슬라(TESLA MOTORS)였다. 2위는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UNITY SOFTWARE INC)로 나타났다. 3주차 순매수 상위 10개사에는 주로 게임, 통신, 자동차 등이 자리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2월 3주차에 테슬라를 8411만달러(약 935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약 1조6688억원)어치 매수했다고 공개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50위권 밖으로 추락했지만 이번주 1위를 탈환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8.55% 급락한 714.5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것 같다"는 발언 이후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추락했다.

이어 순매수 2위를 차지한 종목은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 소프트웨어(UNITY SOFTWARE INC)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6136만달러(약 682억원)였다. 지난주 '깜짝 1위'를 기록했던 유니티는 3주차에도 테슬라에 이어 최상위권을 사수했다. 유니티의 22일 주가는 전장보다 4.89% 내린 115.46달러에 거래를

<2월 3주차 해외주식 개인 순매수액 상위 5개 종목> (단위 : 달러)

순위	국가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미국	테슬라	8411만
2	미국	유니티 소프트웨어	6136만
3	미국	아크 이노베이션 ETF	5553만
4	미국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	4477만
5	미국	뱅크드 S/T CORP BOND ETF	2996만

종료했다.

3위는 성장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ARKK ETF)로 나타났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5553만달러(약 618억원)로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뛰었다. ARKK ETF는 미국 액티브 ETF 선두주자인 아크인베스트가 운용하는 것으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순위권에 포진했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전날 대비 5.79% 떨어진 143.78달러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IRIDIUM COMM INC) ▲뱅크드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VANGUARD S/T CORP BOND ETF) ▲라지캡 볼 3X(LARGE CAP BULL 3X, 2560만달러·약 285억원) ▲길리자동차(GEELY AUTOMOBILE HOLDINGS LTD, 2484만달러·약 276억원)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ARK Fintech Innovation, 2362만달러·약 263억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염재민 기자 yjm208@